

Hard Times의 이데올로기

유 명 속

Eatanswill의 타락선거를 Pickwick적 jeu d'esprit로 戲畫할 수 있었던 Dickens, 가난을 체계적으로 꺾박하려는 취지의 New Poor Law를 통렬하게 풍자하면서도 Oliver Twist 개인의 구원에 만족할 수 있었던 Dickens가 *Dombey and Son*(1848) 이후의 소설에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구현하게 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비평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후반부에 속하는 작품이면서 Dickens가 사회현실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썼다는 증거가 있는 *Hard Times*(1854)의 경우(House 205), 19세기 산업사회의 반영으로서 이 소설이 이룩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Dickens의 소설을 열렬하게 탐독하던 당대의 독자들은 *Hard Times*의 어느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戲畫에 의한 Dickens 특유의 활기를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실패작으로 치부했다.¹⁾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이후에도 이어져, 위대한 대중작가였던 Dickens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진지한(?) 시각을 취한 결과 여러 가지 혼선을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극적인 반론을 제기한 비평가가 주지하다시피 F.R. Leavis이다. 그는 이 소설이 산업사회의 부정적 면모를 공리주의적 사회가 강요하는 사실(fact)과 유용성(utility) 重視의 필연적 결과로 그려냄으로써 빅토리아시대 문명의 비인간화를 포괄적 비전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다고 주장한다(258-59).²⁾ 비슷한 맥락에서 김종철 교수도 *Hard Times*에 나타나는 “삶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인식”(105)을 높이 사면서, 기계적 사실을 강조하는 공리주의가 야기하는 비인간화에 대한 대안으로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Sissy Jupe와 씨커스가 대변하는 민중의 생명력이 대비됨으로써 Dickens의 문제의식이 극적인 갈등을 통해 돌보이는 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Leavis의 강력한 옹호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소설에 대한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첫째, 19세기 前半의 개혁을 주도한 공리주의에 대한 戲畫가 빠뜨려 부르조아로서 Dickens의 근본적인 보수성을 노정할 뿐 아니라 산업사회에 대한 그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반영한다는 비판과, 둘째, 공리주의에 對比하여 Leavis가 높이 평가하는 씨커스 세계도 단장인 Sleary의 혀짧은 발음이라든가 구성원의 어린애같은 면모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되는데 실패하고, Sissy Jupe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그것

1) 당대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Dickens: The Critical Heritage*, ed. Philip Collins (New York: Barnes and Noble)와 *Hard Times: A Norton Critical Edition*, eds. George Ford & Sylvère Monod (New York: Norton, 1966) 279-327 참조. *Hard Times*에서의 인용은 *Norton Critical Edition*에서 하고 본문에 페이지만 표시했다. 이 책에 실린 논문의 인용은 *Norton*이라고 표시한 다음 페이지를 표시했다.

2) Leavis의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는 평가로 Haberman 41, Williams, 172, Arneson 60-75 참조.

이다. Leavis는 *Hard Times*에서 산업사회의 부정적 면모가 포괄적 비진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수긍하지 않는 평자들은 산업사회를 비판적으로 재현하고자 한 Dickens의 의도가 Stephen Blackpool의 말을 빌자면 “it’s aw a muddle”이 되는데 그쳤거나³⁾, 아니면 그의 뚜렷한 의도 자체가 추상적인 체계와 애매하게 “삶”이라고 지칭되는 영역 사이의 “crude binary opposition”(Eagleton 130)으로 나타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⁴⁾

어떤 작품이든 이렇듯 상반된 평가가 있을 때에는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평자들의 전체를 점검해 보고 그 틀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 오래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주요작품일 경우는 더우기 축적된 비평을 따라 읽다가 정해진 논란의 틀에 매여 텍스트를 돌아보지 않기가 쉽기 때문이다. *Hard Times*에 대한 평가도 작품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논란의 틀 안에서 실왕실패가 오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평자들의 공통전제는 Sissy Jupe와 Bitzer의 대결구도에서 나타나는 사실 對 상상력, 머리 對 가슴, 합리주의 對 낭만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으로 예컨대 Leavis는 이를 Lawrence적 “life-force” 對 공리주의의 극적 갈등으로 읽으면서 *Hard Times*를 기계만능의 물질주의를 상징적으로 비판하는데 성공하는 소설로 보는 것이고(260-63), 그와 반대입장인 평자들은 이분법적 대립 자체가 평면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Hard Times*가 과연 이분법적 대립을 뼈대로 하고 있는 소설인지의 여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Dickens가 이분법적 대립의 틀 안에 상상력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 전부라면 *Hard Times*의 성공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Sissy Jupe와 Bitzer의 대조가 극적이고 상징적이라는 Leavis의 주장과는 달리 *Hard Times*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1850년대 영국사회의 총체적 반영으로서 *Hard Times*의 성공을 주장한 Leavis의 감은 옳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소설의 인물들이 Dickens의 다른 소설에 비해 전체적인 구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그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Leavis의 주장이 *Hard Times*를 높이 평가할 근거를 제공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소설의 전체적인 구도를 사실과 상상력의 이분법적 대립으로 축소하고, 그나마 공리주의의 성격이나 역할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Hard Times*에 Leavis가 가정하는 것과 같은 공리주의에 대한 단순히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인물인 Bounderby는 공리주의자가 아니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Gradgrind는 처음 교실 장면에서의 위압적인 첫인상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그의 오류는 본질적이거나 보다는 사실을 “simple arithmetic”(2)로 환원하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Mr. Gradgrind, though hard enough, was by no means so rough a man as Mr. Bounderby. His character was not unkind, all thing considered; it might have been a very kind one indeed, if he had only made some round mistake in the arithmetic that balanced it years ago. (20-21)

3) Norton 332-39, House 210, Holloway 159-74, Hirsch 1-7, Collins 651, Jefferson 210 참조.

4) Jameson 167과 Connor 89-106 참조.

물론 Dickens는 Gradgrind를 통해 인간을 통계수치화하고 인간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공리주의적 방법론을 풍자한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Leavis가 상정하는 것처럼 Coketown에서 전체주의적 권력을 휘두르기는 커녕 무력한 공리공론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s if an astronomical observatory should be made without any windows, and the astronomer within should arrange the starry universe solely by pen, ink, and paper, so Mr. Gradgrind, in his Observatory (and there are many like it), had no need to cast an eye upon the teeming myriads of human beings around him, but could settle all their destinies on a slate, and wipe out all their tears with one little bit of sponge. (73)

위 인용문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려는” Gradgrind의 선의와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석판 위에 통계수치로 바꿔놓는 것으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만, 그가 실제로 그들을 위해 해주는 일은 없다. 창문이 없는 천문관측소의 비유는 Gradgrind를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의 목표하는 바가 “사람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려는” 선의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아이러니를 함축한다. Gradgrind는 압제자가 아니라 인도자를 자처하고 나선 장님인 것이다.

Leavis를 비롯한 많은 평자들이 *Hard Times*에 뚜렷이 나타나는 바 공리주의의 무력함을 간과하는 이유는 현재의 관점에서 추상적이고 따라서 억압적인 이론체계로만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前半의 영국사회를 풍미한 역사적, 사회적 현상으로 보았을 때, 공리주의는 불란서 계몽주의와 맥을 같이하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표로 당대의 개혁을 주도한 이념으로 시작했음을 상기하는 것이 옳다.⁵⁾ John Stuart Mill이 Jeremy Bentham을 “the greatest questioner of things established”로 칭송한 것도 영국의 법, 정치,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려서였다.⁶⁾ 이러한 개혁의 頂點을 이루는 제 1차 선거법 개정으로 탄생한 국회의 출입기자(1832~36)로서 Bentham의 영향을 받은 공리주의자들 가운데서 청년기를 보낸 Dickens는 사회제도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나가는 그들의 추진력과 개혁의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호의적이었다 (House 36; Engel 958).

물론 New Poor Law 같은 공리주의적 改惡에는 Dickens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흔히 Thomas Carlyle의 영향으로 돌리는 Dickens의 공리주의 비판은 Carlyle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할 때 그 의의를 오해하기 쉽다.⁷⁾ Carlyle이 산업사회 자체를 비판적으

5) Holloway도 공리주의가 당대의 주도적 개혁이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163), *Hard Times*에서의 공리주의는 부정적으로만 묘사된다는 Leavis의 전체에 동의함으로써 Dickens가 의도한 바 공리주의의 성격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6) J. S. Mill이 *London and Westminster Review*에 게재한 “Bentham”(1838)에 나오는 평가로 F.R. Leavis, intro., *Mill on Bentham and Coleridge* (1956; Cambridge: Cambridge UP, 1980) 41에서 재인용. Mill은 공리주의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잡지의 독자들이 Bentham에게 호의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Coleridge”(1840)와 대비해서 Bentham과 공리주의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Bentham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 평가로 봐도 좋을 것이다.

7) 예를 들어 Dickens가 Bentham의 영향에서 벗어나 Carlyle에 경도하면서 공리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Goldberg의 주장은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61-76).

로 보기 때문에 [공리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궁극적으로는 개혁을 믿지 않는 보수주의자인 반면에, Dickens는 점차 확신이 없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산업사회로의 추이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⁸⁾ 그렇기 때문에 *Hard Times*에 나타나는 공리주의 비판도 Gradgrind의 통계자료책자(bluebooks)가 복잡한 사회현상을 숫자로 환원하는 단순성에 한정된 것이지, 그 개혁의지를 조롱하거나 빈민이나 노동계급을 돕고자하는 선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창문이 없는 천체관측소의 비유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경주하는 공리주의자들의 노력이 최대다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민이나 노동계급의 최대행복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그 사실 조차 깨닫지 못하는 공리주의자들의 눈업을 풍자한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Gradgrind이 무력한 존재로 부각되는 것도 공리주의적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의도(intention)와 실행(execution) 사이의 괴리로 규정하기 위해서이다.⁹⁾ *Hard Times*에서의 공리주의는 급진개혁운동으로 시작할 과거를 포괄하기 때문에 선의를 전제로 하며, 그 급진성이 왜곡된 현재에 초점을 맞추기에 궁극적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많은 평자들이 주목해온 저 유명한 Coketown의 묘사만 놓고 본다면 공리주의적 획일성이 이 도시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It contained several large streets all very like one another, and many small streets still more like one another, inhabited by people equally like one another, who all went in and out at the same hours, with the same sound upon the same pavements, to do the same work, and to whom every day was the same as yesterday and tomorrow, and every year the counterpart of the last and the next. (17)

그러나 “Key-note” 장에서 강조되는 공리주의적 획일성은 소설의 전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Coketown에서의 매일은 위의 주장과는 달리 똑같지 않고, 이 도시의 주민들도 여느 소설의 등장인물과 다름없이 각기 다른 개인이다.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몇몇 평자들은 이러한 괴리가 분열의 시대를 살던 Dickens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Williams 174), 새로운 현상인 기계적 산업화를 개인주의의 유물인 소설이라는 장르에 담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율배반으로 정의하기도 한다(Spector 369). 그러나 *Hard Times*를 꼼꼼하게 읽은 독자에게 이러한 거창한 해석은 불필요하다. Dickens 자신이 Coketown을 “a triumph of fact”(16)로 정의한 것을 한 페이지 남짓 지나서 부정하면서 이 도시에서 공리주의의 승리가 표면적이고 피상적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A town so sacred to fact, and so triumphant in its assertion, of course got on well? Why no, not quite well. No? Dear me!

8) 산업화와 산업사회에 대한 Dickens의 태도에 대해서는 Collins 663, Brantlinger(1971) 281 참조.

9) Jefferson은 Gradgrind를 유명한 공리주의 개혁가인 Edwin Chadwick과 비교하면서 Dickens가 그의 구체적 활동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201). 그러나 Dickens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공리주의의 성격을 무력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적 교육개혁에 있어 의도와 실행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Dickens가 *Our Mutual Friend*에서 한 논평을 참조할 것: “The teachers, animated solely by good intentions, had no idea of execution, and a lamentable jumble was the upshot of their kind endeavours.” (Bk. 2, Ch. 1)

No. Coketown did not come out of its own furnaces, in all respects like gold that had stood the fire. (17-18)

사실을 신성시하고 의기양양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Coketown이 확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도시가 애시당초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라 공장에서 만들어내듯 생겨난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Coketown은 공리주의라는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역사적 조건이 만들어 낸 그리고 각기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장인 것이다. “Keynote” 장에서 교회와 감옥과 병원과 시청의 건물을 판에 박은듯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확일성은 일 더하기 일은 이라는 공리주의적 사실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가장 싼 시장에서 사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다(to be purchaseable in the cheapest market and saleable in the dearest)” (17)고 증명된 “사실”에 근거한다. Coketown은 무차별한 이윤추구가 “사실”로 포장되어 강요되는 현장이지 기계적이지만 중립적인 사실이 지배하는 도시가 아닌 것이다.

Coketown에서의 “사실”이 결국 이윤극대화라는 목표에 복무하는 허위의식이라면, 이곳의 實勢가 Gradgrind 같은 공리주의자가 아니라 넓게는 “Coketowners,” 좁게는 “town magnates”로 명명되는 Coketown의 중산층을 근거로 하는 자본가임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다. *Hard Times*의 남다른 점은 이러한 실세의 성격을 개인이 아닌 집단의 차원에서 규명하고, 사회의 모순을 특정제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를 뒷받침하는 의미생산구조로서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공리주의의 무력함도 이데올로기로서 무력한 것이다. 이 도시를 지배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사실이 아니라 “사실”로 포장된 이윤추구라는 절대목표이다. 공리주의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하층계급에 필요한 “사실”의 주입으로 전락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공리주의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진 수단으로서 전락했다면, “Coketowners,” 혹은, “town magnates”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Young(1-11)을 비롯하여 빅토리아시대의 史家들이 예외 없이 공리주의와 함께 복음주의를 이 시대의 지배담론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답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Hard Times*의 성과는 복음주의와 공리주의의 역학관계에 대한 통찰에 근거한다. Dickens는 *Hard Times*에서 Coketown의 중산층을 근거로 한 복음주의가 특정계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 개혁이념으로 시작한 공리주의 마저 왜곡 흡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Key-note”장의 첫머리에서 공리주의의 확일성이 곧 “eighteen religious persuasions”로 총칭되는 복음주의의 異口同聲에 압도당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Hard Times*에 대한 평자들의 오해는 공리주의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복음주의를 Coketown의 “keynote”로 주목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물론 복음주의는 공리주의처럼 구체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것도 아니고 줄거리의 전개와도 별로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Coketown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그 추상적인 성격 때문에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공리주의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음험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세속화한 복음주의이다. 사실 복음주의

10)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는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London: New Left Books, 1971) 127-28;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Oxford: Basil, 1983) 14; Goran Therbon,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London: Verso, 1980) 15 참조.

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공리주의 보다 더 확고하게 당대의 지배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청교도 혁명의 실패 이후, “dissent” 혹은 “nonconformist” 등의 부정어로 정의되거나 Restoration drama에서는 “cits”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비국교도 중산층은 산업혁명을 통해 축적한 경제력과 복음주의에 근거한 도덕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영국국교와 귀족계층에게까지 영향력을 확산하고, 공리주의의 개혁의지와 방법론을 동원하여 제 1차 선거법 개정을 前後로 노예제도 폐지, 공장법과 위생법의 제정, 행형제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의 주체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련의 개혁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심적인 개혁세력의 헌신적인 노력도 일조했겠지만 불란서 혁명과 같은 대폭발을 원하지 않는 지배계층의 계산된 양보도 작용했다. 즉, 급격한 경제성장이 야기한 새로운 계급 분화가 갈등 관계로 정착된 상황에서 영국의 지배계급은 사회의 결속을 위한 이념적 통제, 특히 종교를 통한 노동자 빈민 계급의 교화의 필요성의 증대와 함께 복음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것이다(Kenneth Thompson 73). 주일학교의 교육내용—빈민과 노동자들에게 쓰기를 가르치느냐의 여부—가 이념적 갈등의 場이 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복음주의가 지배담론으로 자리잡은 19세기 前半의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의 浮上和 함께 종교적 현상으로서라기 보다는 사회적 구조로 자리잡은 복음주의는 허위의식으로 전략함으로써 Marx와 Engels가 이데올로기를 개념화하는 구체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 이전에도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사실”의 강요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있었다. 사실 19세기를 前後로 한 급격한 개혁요구는 전통적인 사회제도가 규범이 처음부터 주어졌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결국 특정계급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19세기를 전후하여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단체나 교육단체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분수지키기를 가르치는데 주력한다는 비판이나, 主日を 경건하게 보내자는 취지의 Sunday Observance Bill(1836)이 결국 일요일 밖에는 여가시간이 없는 빈민계층의 활동만을 제약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은 권력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기 위한 諸 수단—“Ideological State Apparatuses”—에 대한 당대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Hard Times*도 예외는 아니다.

*Hard Times*의 시대적 배경을 이루는 1850년대는 19세기 前半의 개혁을 뒤로 하고 지배담론으로 자리잡은 복음주의와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진행되면서 허위의식을 “사실”로 증명하는 방법론으로 전략한 공리주의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틀로 자리 잡은 시기였다. 185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19세기 前半의 영국은 그야말로 10년을 단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입법개혁의 열기가 높았던 1830년대가 흔히 “배고픈”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하는 1840년대로 이어지면서, 개혁의 주체가 중산층에서 노동계급으로 옮겨간 차티스트운동이 야기한 불안감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을 얻어낸 1850년대의 중산층은 급격히 보수화하였다. 1830년대에 이미 Carlyle이 거론해서 공감대를 얻었던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Unto this Last*를 John Ruskin이 *Cornhill Magazine*에 연재중(1860~62) “socialistic heresy”라는 독자들의 반발로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Brantlinger[1977] 3).

다시 말해서 *Hard Times*의 배경을 이루는 1850년대는 1810년대와 비견할만큼 반동

의 시절이었다. 종교적 열정은 다 사그라진 1850년대의 복음주의는 기독교를 고작 “착한 아이는 자라서 반드시 저금통장을 갖게 되고, 나쁜 아이는 자라서 반드시 유형을 당한다 (the good grown-up baby invariably got to the Savings-bank, and the bad grown-up baby invariably got transported[38])”라는 도덕률로 왜곡한다. 한편 복음주의보다 2, 30년 늦게, 즉, 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한 공리주의도 당초의 개혁의지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민주적 명제를 가장 싼 시장에서 사서 가장 비싼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이윤추구의 목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개혁을 위한 복음주의와 공리주의의 협력은 중산층의 집단 이기주의가 이윤추구라는 현실적 목표를 섭리, 혹은 사실로 호도하기 위한 야합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Sissy Jupe와 씨커스가 대변하는 낭만주의적 세계관이 소설에서 구체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현실에서 삶의 주변부로 철저히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Coketown에서 복음주의와 공리주의와 함께 만들어내는 “key-note”가 보수화한 중산층의 목소리이며 이윤추구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이 도시 중산층의 공통 관심사가 이윤을 만들어내는 노동계급이라는 사실은 놀라울 것이 없다. Dickens는 Coketown이 사실을 강조하는 만큼 확실히 잘 운영이 안된다고 꼬집어 제시하고 나서 노동계급의 탈교회화를 최대의 현안으로 만드는 이 도시의 중산층의 저의를 짚고 넘어간다.

the perplexing mystery of the place was, Who belonged to the eighteen denominations? Because, whoever did, the labouring people did not. (18)

노동자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740년대에 Wesley 형제의 부흥운동에서 확산된 복음주의가 노동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경주한 노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교회(영국국교)로부터 소외 당한 채 값싼 술로 몸과 마음을 망쳤던 노동자들에게 복음주의는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¹¹⁾ 구원을 확신한다면 근면, 정직, 성실을 주요덕목으로 삼아 자조자립하여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복음주의가 부여한 영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체찍질하여 열심히 일하였고, 자기계발을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도 하였고, 노동운동에 헌신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¹²⁾ 그러나 1850년대에 오면 중산층의 이념이면서 노동계급의 이념적 지주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복음주의는 중산층의 독점물이 되고, Engels가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1845)에서 지적하듯이 교회와 노동계급의 괴리라는 결과로 나타난다(151).

“Key-note”장에서 Dickens는 노동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산층—복음주의 쪽이건 공리주의 쪽이건—의 공통된 우려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와 공리주의가 상호간에 적대감은 커녕 거부감도 없이 공존하면서 노동계급의 탈교회화를 걱정하는 배경에는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한 중산층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무신론자들인

11) 귀족계층이 복음주의의 이러한 주장을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물론이다. E. P. Thompson의 책에 인용된 Duchess of Buckingham의 필지 참조(43).

12) E. P. Thompson이 지적하는 대로 감리교가 궁극적으로 빈민의 종교가 아닌 “a religion for the poor”(37)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복음주의가 불탄서 혁명을 전후하여서는 “revolutionary fifth column”으로 의혹의 눈길을 받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Kenneth Thompson 50).

공리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의 탈교회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노동계급을 제도, 근면하고 순종적인 산업사회의 역군을 만드는데 종교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Dickens는 Coketown의 한 단체가 “강제로라도 이들을 종교적으로 만드는 법안(acts of parliament that should make these people religious by main force)”(18)을 매년 국회에 청원하는 이유가 결코 종교적이 아님을 야유한다.

종교적이 아님은 “eighteen religious persuasions”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노동계급을 구제불능의 정도로 부도덕하다고 매도하기에 바쁜 그들은 노동자들을 돕겠다는 선의마저 증발한지 오래인 것으로 나타난다. 공리주의적 방법론인 “tabular statements”(18)를 근거로, 혹자는 노동자들이 술을 마시며 어떤 방법으로도 술을 끊게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혹자는 술을 안 마실 때는 아편을 맞는다고 덧붙이고, 혹자는 이들이 “low haunts”에 드나든다고 비난한다. 결국 노동계급에 대한 “eighteen religious persuasions”의 일치된 결론은 그들이 “a bad lot altogether”(18)로 배운망덕하기 때문에 만족을 모른다는 “사실”로 모두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돈의 유무를 축복의 징표로 삼는 타락한 복음주의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복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노동계급의 도덕적 타락을 강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탈출구까지 모두 터부시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불만이 있는 노동자는 부도덕의 표본으로 규정하는 억압적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낸다.¹³⁾ 합리주의(rationalism)에서 합리화(rationalization)의 도구로 전락한 공리주의의 통계수치는 그들의 주장을 “사실”로 포장하여 제시하는 데 이용될 뿐이다.

Coketown에서 공리주의와 복음주의의 미묘한 역학관계는 Gradgrind와 Bounderby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극화된다. Dickens는 이 둘을 “bosom friend”(11)로 소개하지만 곧 “그만큼 바운더비씨는 가까웠다. 아니 독자가 그 쪽을 원한다면, 그만큼 그는 거리가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So near was Mr. Bounderby—or, if the reader should prefer it, so far off.)”라고 덧붙임으로써, 통계수치를 제공하는 공리주의와 이를 이용해서 이윤추구의 극대화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복음주의의 이윤배반적 관계를 암시한다. Bounderby를 복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연결하는 것은 “Bully of humility”라는 모순어법(oxymoron)이다.

He was a rich man: banker, merchant, manufacturer, and what not... A man with a great puffed head and forehead, swelled veins in his temples, and such a strained skin to his face that it seemed to hold his eyes open, and lift his eyebrows up. A man with a pervading appearance on him of being inflated like a balloon, and ready to start. A man who could never sufficiently vaunt himself a self-made man. A man who was always proclaiming, through that brassy speaking-trumpet of a voice of his, his old ignorance and his old poverty. A man who was the Bully of humility. (11)

말할 것도 없이 겸손은 매우 복음주의적 덕목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는 구속의 은사 앞에 보잘 것 없는 죄인으로 참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가난이 곧 죄가 되자 비굴한 태도

13) Bounderby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복음주의의 억압적 흑백논리의 단적인 예이다: “Show me a dissatisfied Hand, and I'll show you a man that's fit for anything bad, I don't care what it is.”(140)

와 분수를 지키는 것으로 그 의미도 바뀌고, 하층계급에게만 장려하고 나아가서 강요하는 덕목이 된다. Bounderby가 현재의 富를 자랑하고 가난한 이들을 욕박지르기 위해서 과거의 무지와 가난을 떠벌이는 모습은 복음주의의 세속화한 선민의식에 대한 회화인 것이다.

그런데 과거분사로 제시된 일련의 동사—“puffed,” “swelled,” “inflated”—가 암시하듯이 그는 거것을 “사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⁴⁾ 공리주의자인 Gradgrind가 사실을 “simple arithmetic”으로 환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는 반면, Bounderby는 허위의식을 구현하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Bounderby가 하는 거것말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가난하지만 애정깊은 부모의 희생으로 교육을 받고, 좋은 주인을 만나 현재의 위치에 이른 행운아인 그는 자신이 도랑에 버려진 棄兒로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성공했다고 거것말을 한다. 그러나 그의 거것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에는 어떤 환경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조자립의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모든 신화가 그렇듯이 자조자립의 신화도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수상을 지낸 Peel의 집안을 예로 들면서 E. J. Hobsbaum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에는 어느 정도의 자본과 사업수완이 있는 사람이면 큰 돈을 아주 빨리 벌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47). 그러나 중, 하층계급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절제와 근면을 강요하여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자조자립의 신화는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노동계급의 가난이 바로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매도하기 위한 허위의식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Bounderby의 거것말은 “town magnates”로 Dickens가 총칭하는 자본가들이 공유하고 강요하는 지배담론의 허위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Any capitalist there, who made sixty thousand pounds out of sixpence, always professed to wonder why the sixty thousand nearest Hands didn't each make sixty thousand pounds out of sixpence, and more or less reproached them every one for not accomplishing that little feat. What I did you can do. Why don't you go and do it? (90)

누구든지 노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 Dickens가 일관되게 “fictions of Coketown”(90)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기산업사회의 적나라한 허위의식, 주로 사용주축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허위의식의 예를 총망라한다. Bounderby가 노동자들이 “육두마차를 타고, 금숟가락으로 자라스프와 송아지 고기를 떠먹여 주기를(to be set up in a coach of six, and to be fed on turtle soup and venison, with a gold spoon)”(54) 원한다는 “사실”을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호사를 원한다고 비난함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사치스러운 투정으로 묵살하기 위해서이다. Bounderby를 위시한 산업자본가들이 노동계급을 “a bad lot altogether”로 몰아 세우는 것도,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무절제와 부도덕을 매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도덕성을 과시하면서 Coketown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로 억제하면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로 보장해 주기를 요구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laissez-

14) Bounderby가 자행하는 언어의 왜곡과 허구의 생산에 대해 많은 평자들이 주목해 왔다(Campbell 419, Butwin 175, Brantlinger[1971] 280, Haberman 55). 그러나 Bounderby의 허풍과 중산층의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허위의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본다.

faire)는 따라서 노동자들의 결사(class-combinations)는 절대 안되지만 사용주축의 단결(united masters)은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이율배반에 근거한다(87 참조). Dickens는 자신들이 정한 바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조금이라도 제한을 가하려는 정부를 향해 휘두르는 “대서양에 전채산을 던져 버리겠다”는 위협적인 “fiction”도 소개한다.

Besides Mr. Bounderby's gold spoon which was generally received in Coketown, another prevalent fiction was very popular there. It took the form of a threat. Whenever a Coketowner felt he was ill-used—that is to say, whenever he was not left entirely alone, and it was proposed to hold him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of any of his acts—he was sure to come out with the awful menace, that he would “sooner pitch his property into the Atlantic.” (84)

Coketown의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문제에도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면서 모든 이윤을 챙기겠다는 몰염치한 욕심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복음주의는 공리주의의 방법론을 동원해서 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허위의식을 “사실”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Coketown의 자본가들과의 든든한 연계를 전제로 할 때 Bounderby의 성격과 역할은 Dickens의 다른 소설에 등장하는 악당들과는 차이가 난다. 그의 허풍은 단순한 회극적 악덕이 아니라 웃어넘길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구현한다. Coketown의 시민들이 Bounderby를 유별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도 “What I did you can do”의 허위의식을 “사실”로 입증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33 참조). Gradgrind이 점점 무력한 존재로 나타나는데 반해 Bounderby는 이 도시의 실세로 소설의 중요인물 모두—중산층인 Gradgrind일가, 상류계층인 James Harthouse, 몰락한 상류계층인 Mrs. Sparsit, 노동자인 Stephen Blackpool—와 연결을 맺고 있으며, James Harthouse를 제외하면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다. Uriah Heep나 Pecksniff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 적절한 처벌을 받는데 비해 Mrs. Peglar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의 허풍이 거짓말로 밝혀진 후에도 Bounderby의 사회적 지위는(Gradgrind이 동료들의 따돌림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별로 손상받지 않는다. 그의 거짓말이 Coketown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한 Bounderby에 대한 회화가 아무리 그레테스크하더라도 그는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town magnates”의 일원으로서 Bounderby의 현실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와 대비되는 노동계급의 형상화가 미흡하다면 산업사회의 반영으로서 *Hard Times*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Hard Times*에 나타나는 노동계급이 대체로 흑평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이 소설을 높이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Slackbridge와 같은 노동운동가는 직업적 선동꾼으로 Stephen Blackpool은 수동적인 희생양으로 그리고 있다는 불평은 노동계급에 대한 Dickens의 태도가 뻔뻔 부르조아로서 계급적 한계를 반영한다는 지적으로 모두어진다. 여기에 덧붙여 Mrs. Gaskell의 *Mary Barton*과 비교했을 때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없다는 지적도 *Hard Times*의 평가절하에 적지않이 기여한다.

*Hard Times*에 노동자들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대체로 이상적으로 묘사되는 점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Dickens는 Coketown을 묘사하면서 자연과 유리된 “왜소하고 비틀린(stunted and crooked)”(49) 모양

의 집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애소하고 비틀린” 노동자들이 나올 밖에 수 없으리라는 예측을 현실로 보여주지 않고, 이상적인 노동계급의 모습, 예를 들어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양의 학식을 축적한 독학 노동자들이나 질서정연한 노동자들의 집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38, 105-11 참조). Dickens의 이러한 선택은 흔히 비판을 받듯이 값싼 감상주의나 노동자들의 절제를 장려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가 그들을 이상화 하는 이유는 이윤추구라는 절대목표를 위해 중산층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허위의식을 비판하면서, 도덕적 우월성을 견지하는 쪽이 중산층의 주장과는 달리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¹⁵⁾

Dickens가 노동계급을 이상화하는 쪽을 선택한 배경은 공리주의 비판과 연결했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Hard Times*는 1830년대까지는 빈민과 노동자들의 작업여건이나 생활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개혁주의세력이 일련의 입법개혁을 추진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했던 공리주의의 통계자료가 *Hard Times*의 배경이 되는 1850년대에는 노동자들을 “a bad lot altogether”로 규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인식시키려는 목표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현실 보다는 이상적인 측면을 부각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Dickens가 Preston의 파업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쓴 “On Strike”의 목표도 중산층 독자들이 노동자에 대해 알게 모르게 조성하는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 그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부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ickens가 *Hard Times*에서 노동계급을 부정적으로 그린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노동운동가인 Slackbridge에 대한 회화 때문일 것이다.

Judging him by Nature's evidence, he was above the mass in very little but the stage on which he stood. In many great respects he was essentially below them. He was not so honest, he was not so manly, he was not so good-humoured... it was particularly strange, and it was even particularly affecting, to see this crowd of earnest faces, whose honesty in the main no competent observer free from bias could doubt, so agitated by such a leader. (105-06)

Slackbridge는 노동운동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중산층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노동운동가로 소개된다. 그러나 그의 부정적 면모는 정직하고 남자답고 선량한 노동자들과의 대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역사적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이기도 하다. 즉, Feargus O'Connor 같은 데마고그가 지도자로 부상함으로써 실패로 끝난 차티스트 운동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1850년대를 배경으로, Dickens는 직업적인 노동운동가에 대한 거부반응이 노동운동 전체를 부정하는 빌미가 되지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Slackbridge와 노동자들과의 확연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Slackbridge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Dickens는 Slackbridge와 같은 직업적인 노동운동가에 초점을 맞춰 차티스트 운동을 몇몇 선동가에 의한 일과성의 음모로 규정해 버리는 중산층 독자들에게 문제의 핵심은 그의 됴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잘 것 없는 지도자라도 따라 나설 만큼 노동계

15) Spector는 *Hard Times*와 Engels의 *The Condition of Working Class*를 비교하면서 후자가 결국 “찬양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깎아내리는(disfigures the men he seeks to praise)”때 비해 Dickens는 그러한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378).

급의 불만이 극에 이르렀다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Stephen Blackpool이 Bounderby와의 면담에서 Slackbridge에게 하자가 있다고 노동운동을 부정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115 참조).

Stephen Blackpool에 초점을 맞춰 Dickens가 노동계급을 Uncle Tom과 같은 수동적인 존재로 그린다는 비판(Butwin 177, Smith 217)도 두가지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Stephen Blackpool의 수동성이 노동계급의 무력함으로 연결될 만큼 그는 전형적인 노동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 불행에 짓눌려 다른 노동자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그는 처음부터 그들과는 구별한다. 그렇다고 그가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남다른 존재로 묘사되는 것도 아니다. Dickens는 그가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결코 적임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He took no place among those remarkable "Hands", who, piecing together their broken intervals of leisure through many years, had mastered difficult sciences, and acquired a knowledge of most unlikely things. He held no station among the Hands who could make speeches and carry on debates. Thousands of his compeers could talk much better than he, at any time. (49)

다른 노동자들과 유리된 삶을 영위하면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돌이켜 볼 겨를도 없었던 그는 1850년대의 전형적인 노동자라기 보다는 근면하고 순종하고 분수를 지키라는 복음주의적 도덕률을 극복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자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것이다(Arneson 68). Coketown의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서 가부장적 역할을 기대하지 않은지 오래인 터에 신상문제를 놓고 사장인 Bounderby를 찾아간다는 것이 그의 과거지향적 성격을 입증한다.

둘째로, Bounderby와의 두번의 만남에서 분명해지듯이 Stephen Blackpool은 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동적인 것 만은 아니다. 사투리를 그대로 표기하여 의사전달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는 어눌한 대로 Bounderby가 대변하는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공박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해낸다. 따지고 보면 말도 잘하고 의식있는 노동자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노동자인 Stephen Blackpool이 노사관계나 빈부격차에 중산층이 강요하는 허위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공박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을 운명인듯 순종하며 살아온 그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혼과 같은 개인적 사안에 있어서도 부자를 위한 법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법이 따로 있음을, 사용자측은 항상 옳고 노동자측은 항상 틀리다는 주장이 "사실"로 강요되는 현실을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그가 "muddle"로 정의하는 현실의 부조리가 더 강렬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Hard Times*가 보여주는 현실의 의미는 Coketown이라는 가공의 산업도시를 배경으로 가난을 백안시하는 복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공리주의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노사관계에 대한 허위의식을 "사실"로 강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까지 독점하는 19세기 중반 영국 중산층의 집단 이기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Leavis가 주장하는 바 *Hard Times*의 도덕적 의미는 "사실"로 강요되는 허위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데 근거한다. 이 소설은 노동자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차티스트 운동이 야기한 혼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수화한 중산층을 근거로 초기산업사회에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 복음주의에 대한 뼈아픈 비판이다. 특히 복음주의와 공리주의의 역학관계에 대

한 통찰은 역사의 역동성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Hard Times*가 소설로서 결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Louisa, Rachael, Sissy Jupe 같은 여성 등장인물의 부자연함에서, 크게는 Coketown이라는 산업도시가 결국 배경으로 비켜서면서 Gradgrind 개인의 가족사로 축소되는 결말에 이르기 까지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Bounderby에 대한 지나친 희화가 독자로 하여금 그의 현실성을 쉽게 묵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Ruskin의 지적은 *Hard Times*의 가장 중요한 약점을 가리킨다(Norton 332). Leavis가 공리주의에만 초점을 맞춰 기계만능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이 소설의 의의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평자들도 사실 대 상상력의 이분법적 틀에 사로 잡혀 복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사실”을 간과한 원인으로 결국 Bounderby와 Coketowners와의 연계가 그만큼 확실히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Bounderby에 대한 “지나친” 희화는 초기산업사회의 자기모순이 그만큼 극에 달했음을 반영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독자의 공유하려고 했기에 Dickens는 빅토리아시대 소설의 관습대로 등장인물의 미래를 펼쳐보이는 에필로그장에서 자신이 가상의 미래가 현실에서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독자여! 우리의 두 행동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의 여부는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Dear reader! It rests with you and me, whether in our two fields of action, similar things shall be or not.)”(227). 여기에서의 독자는 구체적으로 19세기 前半의 개혁을 직접, 간접으로 목도했으면서도 그동안 이룩한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을 위해 더 이상의 개혁을 외면하는 당대의 보수화한 중산층을 가리킨다. “우리의 두 행동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작가가 쓰는 행위와 독자의 읽는 행위로, 궁극적으로 언어를 매개로 한 의미생산작업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를 문제삼는다. 작자가 만들어낸 허구가 제대로 된 것일 때 현실의 허위의식을 파헤쳐 보여준다. 그러나 그 현실의 일부인 독자가 비판적으로 의미생산작업에 참여할 때에야만 허구에서 허위의식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Dickens는 *Hard Times*에서 독자가 현실의 허위의식과 소설이라는 허구가 보여주는 진실의 상관관계를 보지 못할 때 “현실은 늑대처럼 반격을 가해서 여러분들을 끝장내고 말 것(Reality will take a wolfish turn, and make an end of you)”(125)을 경고한다.

그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Hard Times*의 문제제기가 틀리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다. *Hard Times*를 높이 평가하는 거의 유일한 당대의 독자인 Ruskin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소설을 자세히 그리고 진지하게 읽을 것을 권유한 이유도 Dickens의 문제제기가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기 때문이다.

Hard Times, should be studied with close and earnest care by persons interested in social questions. They will find much that is partial, and because partial, apparently unjust; but if they examine all the evidence on the other side ... it will appear, after all the trouble, that his view was the finally right one, grossly and sharply told. (Norton 332)

*Hard Times*가 소설로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을 지배한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인 타락한 복음주의의 부정적 실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방법론으로 전락한 공리주의와의 역학관계를 꿰뚫어 본다는 점에서 그의 시각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옳

고 요점을 찌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진 자의 허위의식이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Hard Times*의 의의가 적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Works Cited

- Arneson, Richard J. "Benthamite Utilitarianism and *Hard Times*." *Philosophy and Literature* 2 (1978): 60-75.
- Brantlinger, Patrick. "Dickens and the Factories." *Nineteenth-Century Fiction* 26 (1971): 270-85.
- _____. *The Spirit of Reform: British Literature and Politics, 1832~1867*. Cambridge: Harvard UP, 1977.
- Butwin, Joseph. "*Hard Times*: The News and the Novel." *Nineteenth-Century Fiction* 32 (1977): 166-87.
- Campbell, Jane. "'Competing Towers of Babel': Some Patterns of Language in *Hard Times*." *English Studies in Canada* 10 (1984): 416-35.
- Coles, Nicholas. "The Politics of *Hard Times*: Dickens the Novelist versus Dickens the Reformer." *Dickens Studies Annual* 15 (1986): 145-79.
- Collins, Philip. "Dickens and Industrialism."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20 (1980): 651-73.
- Connor, Steven. *Charles Dickens*. Oxford: Basil Blackwell, 1985.
- Eagleton, Terry. *Criticism and Ideology: A Study in Marxist Literary Theory*. London: Verso, 1978.
- Engel, Monroe. "The Politics of Dickens' Novels." *PMLA* 71 (195): 945-74.
- Engels, Friedrich.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London: Penguin Books, 1988.
- Goldberg, Michael. "From Bentham to Carlye: Dickens' Political Developmen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3 (1972): 61-76.
- Haberman, Melvyn. "The Courtship of the Void: The World of *Hard Times*." *The Worlds of Victorian Fiction*. Ed. Jerome Buckley. Cambridge: Harvard UP, 1975.
- Hirsch, David H. "*Hard Times*: and Dr. Leavis." *Criticism* 6 (Winter 1964): 1-16.
- Hobsbawm, E. J. *Industry and Empire: The Making of Modern English Society, Vol. II 1750 to the Present Day*. New York: Random House, 1966.
- Holloway, John. "*Hard Times*: A History and Criticism." *Dickens and the Twentieth Century*. Ed. John Gross and Gabriel Pearson. London: Routledge, 1962.
- House, Humphrey. *The Dickens World*. London: Oxford UP, 1941.
- Jameson, Fredric. *The Prison-House of Language: A Critical Account of Structuralism and Russian Formalism*. Princeton: Princeton UP, 1972.
- Jefferson, D. W. "Mr. Gradgrind's Facts." *Essays in Criticism* 35 (1985): 197-212.
- Leavis, F.R. "*Hard Times*: An Analytic Note." *The Great Tradition*. 1948;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72. 258-83.
- Scheckner, Peter. "Chartism, Class, and Social Struggle: A Study of Charles Dickens." *Midwest Quaterly* 29 (1987): 93-112.
- Smith, Sheila M. "John Overs to Charles Dickens: A Working Man's Letter and Its Implications." *Victorian Studies* 18 (1974): 195-217.
- Spector, Stephen J. "Monsters of Metonymy: *Hard Times* and Knowing the Working Class." *English Literary History* 51 (1984): 365-84.
- Thompson, E. 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1966.
- Thompson, Kenneth. *Beliefs and Ideology*. London: Tavistock, 1986.
- Walder, Dennis. *Dickens and Relig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 Williams, Raymond. "The Reader in *Hard Times*." *Writing in Society*. London: Verso, n.d. 166-74.
- Young, G.M. *Portrait of an Age: Victorian England*. 1936; Oxford: Oxford UP, 1960.
- 김종철. "『어려운 시절』의 민중성", 백낙청 편, 『서구 리얼리즘 소설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